

경제

2011 새해에는

10이성남 광주지방조달청장

“지역중기 조달시장 참여 적극 지원”



75조대 황금시장 공략 계약 전문가 육성해야

“조달청(공공조달시장) 낙찰은 ‘운’이 아니라 전략과 분석의 산물입니다. 계약제도의 변화를 읽고 이를 분석·연구하는 사람에게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는 특히 “정부 조달시장에서 낙찰은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다”며 ‘고스톱론’을 폈다. 고스톱 게임을 보면 매번 따는 일명 ‘선수’가 있다. 선수는 고스톱을 ‘운’으로 치지 않는다. 자신의 노후(전략)와 판을 읽는 분석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승률이 높다. 공공조달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제로 선정되면 매출이 최소 2~3배 이상 뛰는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며 “조달우수제품 인증 획득에 도전하라”고 강조했다.

지역 백화점 첫 정기세일 “한파가 효자” 겨울 옷·수산물 특수 매출 두자릿수 ‘깡충’

지역 백화점들이 새해 첫 정기세일에서 최대실적을 올리며 한파특수를 푹푹 누렸다. 특히 이번 세일에서는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겨울의 류가 잘 팔렸고 설 대목 수요까지 겹쳐 매출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수산의 경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생선이 큰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급증했다. 또 해외명품 브랜드들의 시즌오프(가격인하) 행사가 겹치면서 명품매출도 약 40% 증가했다.

조달청 공공 수요물자 16조3천억 입찰 예고

조달청은 올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수요물자 구매계획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예고(예시)했다고 24일 밝혔다.

Table with financial data: 코스피지수 2,082.16 (+12.24), 코스닥지수 527.09 (+1.34), 금리(국고채 3년) 3.88% (+0.07), 원·달러 환율 1,121.00원 (-3.10)

광주·전남 경제 성장세 ‘주춤’

제조업 생산 상승 폭 2.1% 그쳐 ... 수출은 8.2% 증가

韓銀, 지역경제 동향 발표

최근 광주·전남 지역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소비의 회복세도 둔화되는 등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폭이 줄었다. 12월 제조업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도 11월 94에서 85로 크게 하락했다. 광주의 경우 자동차(25.5%), 기계장비(64.9%)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전남은 금속가공(-45.5%), 1차금속(-1.2%), 고무·플라스틱(-2.8%) 등이 부진을 면치 못해 감소폭이 확대됐다.

그쳐 전남(24.4%)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2010년 중 광주·전남의 수출액은 42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11월 중 백화점 등 대형 소매점의 판매는 아웃도어 용품과 보온기구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지만 증가폭(1.4%)은 미미했으며,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남 보다 1포인트 상승한 112를 기록했다.

11월 중 건설활동은 건축착공면적 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달 -6.0%에서 65.4%로,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34.0%에서 114.6%로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업그레이드 기아차 ‘모닝’ 이름 빼고 다 바꿨다

여성 맞춤형 고품격 편의사양 ... 성능·연비도 ‘굿’

기아차 ‘모닝’이 이름 빼고 다 바꿔 7년 만에 새롭게 태어났다. 특히 새롭게 바뀐 신형 모닝은 여성 맞춤형 고품격 편의사양을 갖추고 본격적인 ‘여심(女心) 사로잡기’에 나섰다.

기아자동차는 24일 제주도 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서영종 사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와 기자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모닝’ 보도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

신형 모닝은 2004년 2월 출시된 국내 최초 1000cc 경차 1세대 모닝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와 기자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모닝’ 보도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

에 이어 7년 만에 선보이는 풀 체인지 모델이다. 총 1800여원을 투자해 3년4개월의 연구개발 끝에 완성했다. 기아차 독자기술로 개발한 1.0 카파 엔진을 국내 최초로 장착해 최대출력 82마력, 최대토크 9.6kg.m을 구현했다. 연비는 자동변속기 모델 19.0km/ℓ, 수동변속기 모델 22.0km/ℓ 로 국내 경차 모델 중 최고의 힘과 연비를 갖췄다.



기아차는 24일 제주도 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형 모닝’의 출시 발표회를 열고 올해 22만대 판매를 목표로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기아차 제공)

은행권 가계대출 급증

작년 21조원 ... 전년비 5.4% ↑

국내은행들의 가계대출 규모가 작년 한해동안 21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국내은행의 원화 자금운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보다 5.4% 상승한 42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금 잔액은 전년보다 32조4000억원 늘었지만, 증가폭(3.4%)은 전년(4.3%)에 비해 오히려 0.9%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성장률 5%” 韓銀, 상향 수정 시사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추세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은 24일 “올해 실질 GDP 규모가 한은이 추정했던 우리 경제의 장기 추세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30대 그룹 113조 투자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30대 그룹이 올해 11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여의도 KT빌딩 전경련 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수출·투자·고용 확대를 위한 대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Large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 Academy (한빛고시학원) featuring exam preparation for public servants (공무원) and various courses like 7-grade comprehensive, 9-grade problem-solving, and job training.